

# 펜 더하고 가격 내리고... '메모族' 겨냥 'LG Q8' 출시

**LG전자 출고가 53만9000원**  
화면 꺼져 있어도 메모 가능  
실제 필기구 소리 더해 생생  
편의기능·내구성 완성도 높여

LG전자가 10일 스마트폰 메모족 공략을 위한 중가형 'LG Q8'을 본격 출시한다.

53만9000원의 출고가에도 전용 펜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기능과 야날로그 감성까지 완성도 높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Q8에 내장된 '스타일러스 펜'을 통해 쉽게 메모할 수 있으며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펜만 뺐으면 디스플레이에 바로 메모할 수 있는 '바로 메모' ▲아무 화면에서나 즉시 메모하는 '팝 메모' ▲메모 공간이 부족하면 손가락 2개로 화면을 터치해 아래로 내리며 쓸 수 있는 기능까지



LG전자가 10일 스마트폰 메모족 공략을 위한 중가형 'LG Q8'을 본격 출시한다.

/LG전자

다양한 메모가 가능하다.

재미를 더하는 편집 기능도 다양하다. ▲내장된 기본 도안뿐 아니라 사진을 도안으로 바꿔 원하는 대로 색칠할 수 있는 '컬러링 북' ▲폰 안의 사진을 꾸며 이모

티콘처럼 쓰는 '나만의 이모티콘' ▲동영상을 GIF 파일 형태로 편집해 움직이는 사진으로 만드는 'GIF 편집' 등이 적용됐다.

또 실제 필기구를 쓰는 소리로 감성을

더했다. 예를 들어 연필을 고르면 실제 종이에 쓰는 듯한 사각거리는 소리, 붓을 고르면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등 펜 종류에 따라 10가지의 필기구 소리를 낸다.

8:9화면비의 6.2인치 대화면에도 베젤을 줄인 '폴비전' 디자인으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뛰어난 그림감을 갖췄다. 멀티미디어 경험도 탁월하다. 제품 후면의 1600만 화소 고해상도 카메라에는 '위상 검출 자동 초점' 기술을 적용해 빠르게 초점을 잡아 선명하게 촬영해준다. 사물을 촬영하면 피사체를 분석해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주거나 QR코드를 분석해주는 'Q렌즈' 기능도 탑재됐다.

전면 초광각 카메라는 화각이 100도로 셀카봉 없이도 7~8명이 함께 셀카를 찍기에 충분하다.

LG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품군에 탑재된 독보적인 명품 사운드도 LG Q8에 고스란히 돌아왔다. '하이파이 쿼드 DAC'을 탑재해 원음에 가까운 깨끗한 소리를

구현하고 음원 종류와 관계없이 어떤 콘텐츠를 재생해도 입체 음향효과를 내는 'DTS:X' 입체음향 기술을 더했다.

또한 LG전자는 방수방진 최고 등급인 IP68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미국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군사 표준규격 'MIL-ST D810G'을 획득하며 뛰어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속충전이 가능한 '퀵차지 3.0'과 3300밀리암페어(mAh)의 대용량배터리로 빠르게 충전하고 넉넉하게 게임이나 동영상 등을 즐기게 해준다. 고속충전을 지원하는 USB C타입 포트,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LG 페이, 데이터 소모 없이 즐길 수 있는 HD DMB와 FM라디오도 적용됐다.

LG전자 안병덕 모바일마케팅담당은 "다양한 편의기능과 탄탄한 내구성으로 완성도를 높인 LG Q8이 국내 중가대 스마트폰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매주 목요일은 고객 속으로'... 하현희 현장경영 시동

(LG유플러스 부회장)

전국 영업점 방문해 점검·직원 격려  
"현장에서 얻은 경험으로 경영 구상"

취임 4주차를 맞는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이 현장 중심 경영에 본격 나섰다. 이를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전국 각 영업지점 등을 차례로 방문해 경영행보를 늘려갈 방침이다.

하 부회장은 현장경영 첫 일정으로 9일 오후 내방객이 많은 강남지역 직영점 두 곳과 방배동 네트워크 구사, 논현동 서울 고객센터 등 잇따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하 부회장은 그동안 각 부문장 및 임원들과 면담을 하며 업무현안을 파악하는 한편 네트워크 및 서비스 연구개발 부서가 상주하는 마곡 사옥에 수시로 방문해 목전으로 다가온 5G 상용화 준비를 직접 챙겨왔다.

취임 직후 마곡 사옥을 들른 하 부회장은 5G 준비현황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상용화 일정과 함께 주요 서비스가 차질



하현희 부회장(오른쪽)이 고객 입장이 돼 강남지역 직영점 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5G 관련 부서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5G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취임 때부터 강조해온 현장 중심 경영 철학에 따라 하 부회장은 문서보고 위주의 업무과외에서 벗어나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전국 각 영업지점과 네트

워크 국사 등을 차례로 방문하기 시작했다. 우선 수도권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시작해 점차 각 지역으로 경영행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첫 번째 방문지인 강남지역영점에서 하 부회장은 매장환경, 주요 서비스 및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고객반응을 살폈다. 하 부회장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최선

을 다해 준 덕분에 올 2분기 모바일 순증 가입자가 26만7000명이 늘었고, 상반기 IPTV 가입자 순증 점유율도 1위를 기록했다"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책상에서 벗어나 현장을 열심히 찾아 다니러 한다.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얻은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구상을 마치는 대로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임직원들이 영속적으로 꿈을 펼쳐 나가도록 일등 비전 실현되는 LG유플러스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고객센터에서도 간담회를 마련하고 상담사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회사 측은 "현장 경영을 통해 사업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향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경영을 통해 구성원들과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나인 기자



고객들이 SK텔레콤의 AI 스피커 '누구(NUGU)'의 비스타 워커히 서울 객실 적용 소식을 알고 있다.

/SK텔레콤

## SK텔레콤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 워커히호텔서 만나세요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플랫폼 '누구(NUGU)'를 통해 비스타 워커히 서울 객실에서도 AI 음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9일 '누구'의 '비스타 워커히 서비스'를 비스타 워커히 서울 44개 객실에 우선 적용해 객실 이용 고객에게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체 객실 대상으로는 3분기 내 적용 예정이다.

이번 AI '누구'의 비스타 워커히 서울 객실 적용은 SK텔레콤이 준비 중인 오픈 플랫폼 베타 버전을 활용한 것으로, 지난 달 초 24시간 편의점 '씨유(CU)'에 적용된 데 이어 두번째다.

비스타 워커히 서울의 객실에 설치된 '누구'를 통해 고객들은 객실의 조명, 커튼, 온도설정 및 게스트 서비스 설정 등을 음성으로 쉽게 제어하게 되며 입실할 때는 AI가 들려주는 웰컴 음악을 듣게 된다. 아울러 실내 수영장, 스카이다, 셔틀버스 등의 호텔 내 시설정보들과 체크아웃 시간, 조식 시간 등 호텔 이용에 필요한 정보들도 손쉽게 음성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리아, 비스타 셔틀버스 어디서 타지?"하고 물으면 누구가 "호텔 무료 셔틀 버스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 2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에요. 호텔 환관 맞은 편 정거장에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와 같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4분기 중 오픈 플랫폼을 공개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AI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인 기자

## SAMSUNG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세우고 OLED 생산력 늘린다 LG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기업 하반기 전망은?

삼성 1조 들여 충남아산에 공장 증설  
LG LCD보단 OLED에 투자 확대

삼성이 신규 투자 금액 180조원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사업에 대거 투자하면서 향후 디스플레이 사업 계획에 관심이 주목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A5 공장 증설이 이번 투자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약 1조원을 들여 지난 상반기에 아산공장 2단지 부지 기반공사를 마무리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폴더블(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용 패널을 포함해 삼성의 OLED 생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산 A5 공장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 A5 공장 증설...OLED 생산 박차**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총 신규 투자 금액 180조원 중 국내에만 130조원을 투입한다. 신규 투자비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사업과 인공지능(AI)·5세대(5G) 이동통신·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나눠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A5 공장 증설이 이번 투자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약 1조원을 들여 지난 상반기에 아산공장 2단지 부지 기반공사를 마무리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폴더블(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용 패널을 포함해 삼성의 OLED 생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산 A5 공장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G, 아이폰 패널 공급 '기대'**  
LG디스플레이는 오는 9월 아이폰 신제품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OLED 패널 공급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서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LG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폰 신형 모델에 OLED 신규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공개할 3종류의 신형 아이폰에 OLED 공급을 시작하면 LG디스플레이는 2019년께 1000만대 이상의 OLED 패널을 공급하게 된다. 또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되면 LG디스플레이가 애플에 공급하는 OLED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중국 LCD업체들의 파산 공세로 LCD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OLED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LCD 투자는 대폭 줄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 OLED 생산시설이 될 파주P10 공장은 LCD를 거치지 않고 10.5세대 OLED로 곧바로 직행한다. P7·P8 공장 등의 OLED 전환도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김상돈 LG디스플레이 부사장은 지난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OLED 전환 스탠스는 강화하지만 모바일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파주 P10공장의 OLED 직행으로 인한 LCD 투자 조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OLED 패널도 증대된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중국 광저우 8.5세대 OLED 공장 건설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내년 하반기 양산 예정인 해당 공장보다 더 빠른 대형 OLED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